

한국 양돈산업의 당면문제와 대응책

1. 서 론

작년 말 WTO 비준 동의안이 급기야 국회를 통과해 이제부터 WTO 창설회 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어 어쩔 수 없는 수입 개방화에 대처해야만 할 때가 왔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주저 앉아 있을 수 만은 없지 않은가?

그동안 물가를 억제한다고 축산물 수입을 부채질 하는 물가 정책도 경험해 보았고 생산성은 떨어져도 산물가의 폭등으로 재미를 보았던 축산 농가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국내의 경쟁에서도 지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세계 여러나라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장애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몇가지 만이라도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



김태주 수의사
(한국 애니멀 크리닉 & 컨설팅 대표)

만, 우리나라 비육돈 생산비는 <표 1>처럼 타 국가들에 비해 높고 생산성은 낮다. 물론 각 국가간의 여건에 따라 생산비가 높게 차지하는 원인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라는 사료비의 비중이 큰 반면, 미국은 반대로 사료비 보다 시설 투자비가 높게 차지할 수 있다.

2. 생산 측면

1) 생산 원가의 절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

2) 사육 규모의 영세화

지난 1년동안 약 1만 5천여호나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규모의 영세성으로 향후 집단화 또

<표 1> 각 국의 비육돈 생산성 비교

(90kg기준/두당/원)

국가 구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덴마크	캐나다	영국
생산비 백분율	124,000 100	104,000 83.9	134,000 108.1	81,000 65.3	95,000 76.6	85,000 68.6	90,000 72.6
생산성지수 백분율	97 100	127 131	135 139	128 132	128 132		

〈표 2〉 사육규모

두수(천두)	호수(천호)	호당두수	전 업 농 가 율		비 고
			기 준	%	
6,000	70	84.2	500두 이상	3.6	50두미만 74.7%

(‘93년말 : 축협제공)

〈표 3〉 돼지의 형질을 구분하는 요인

형 질	요 인
번식성	두수의 총 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인 산자수, 산유량, 재귀발정, 이유두수 모돈 회전율 등
산육성	단위기간 동안의 돈육 총생산량과 자본 회전율을 결정하는 요인 성장속도(일당증체), 사료요구율 등지방 두께 등
도체형질	순 살코기의 함량, 도체장, 안심단면적, 육색 등

는 생력화 되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협업단지 또는 영농조합 등 설립 필요,〈표 2〉 참조)

3) 기술 축적 및 체계화

농가별 생산성은 천차 만별이다. 향후 지속적인 기술 습득 및 체계화로 원가 절감을 실현해야 한다.

4) 기계화

생산원가중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이다.

5) 육종번식

① 체계적인 육종사업으로 종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꿔야 한다.

②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종자 개량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종자 개량이라는 구실 아래 매년 1,000~2,000두의 값비싼 외국 종돈들이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수입돈들이 실제 그들의 목적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많은 시행 착오를 겪어야 했다. 종돈을 수입할 때 뚜렷한 목적도 없이 전시 효과용으로 수입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어떤 계통인지, 국가별 품종간 형질, 성적, 개량목적 또는 장단점 등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자기 농장의 여건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도입을 하다보니 이 또한 국가적 낭비가 아니겠는가?

꼭 수입해야 할 사람들만이 수입을 해서 제대로 된 육종을 하고 개량코자 하는 방향을 뚜렷이 설정하면 좋겠다. 앞으로 종자개량이 양돈 산업 승부수 중 첫째가 될 것이다. (〈표 3〉 참조)

6) 경영 관리의 합리화

생산 기록에 근거한 경영 합리화 만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3. 정책 분야

1) 사료 및 축산기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수입 사료 원료에 대한 관세 감면

– 일본, 미국, 덴마크, 대만, 중국 등은 사료에 대한 부가세가 전혀 없고 오히려 수출 보조금 또는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각종 자금 지원시 현실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소농의 경우 담보 능력 부족으로 융자 받기가 더 어렵다.

3)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4) 물량 수급으로 인한 가격 정책을 지양하고 소비를 홍보 시켜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4. 유통 분야

1) 마케팅 전략 부재

축산 선진국들의 ‘소비자 우선’ 마케팅 전략(위생적이고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상품, 생산, 포장, 진열 및 판매전략) 도입.

즉, 건강과 영양, 간편성과 다양성, 그리고 요리와 식도락을 즐기는 소비자 집단으로 구분한다. 건강과 영양을 생각하는 집단을 위해 저지방 저칼로리 식육을 브랜드화 하고 간편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집단을 위해 음식 준비나 조리가 간편한 식육을 처리 포장하여 다양한 돈육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차별화 마케팅을 시도해야 한다.

2) 돈육 공급시 위생처리 미흡

① 도축 시설의 현대화

전국 150여개 도축장 시설 및 위생문제 개선

② 축산물 도매 시장

- 지육 상태 전 경매 방법 지양하고 부분육으로 경매하는 방법 체택

- 지육 상태로 수송하는 현 시점에서 냉동 시설은 물론 차량 내부 시설 등에 문제점 많다.

③ 부분육 처리공정

- 생돈을 소비자 도매 시장인 공판장으로 직송하므로 발생되는 감량문제와 수송비 등 문제

- 도축 작업은 산지에서 하되 도체 등급제의 실시로 가격 결정 방법이 제시되었으니 등급에 의하여 사육자와 대금은 정산하고 지육은 부분육으로

가공 처리하여 부분육 유통이 되도록 부분육 가공공장이 필요하다.

- 지육 유통상 문제점은 유통비용외 위생문제 또한 심각하다. 지육 수송 후 각 판매점(정육점)에서 골발 해체하는 과정의 위생문제 때문이다.

④ 소매점의 영세성

- 국내 정육 판매 업소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이나 시설 규모면에서는 너무 영세하다. 영세하기 때문에 위생적 처리를 하기가 어려워 진다.

⑤ 냉장육 유통의 필요성

- 식생활 수준이 점차 고급화 되어짐에 따라, 고기의 품질이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냉장육 유통이 정착돼야 한다.

5. 질병 측면

정책적인 면, 또한 양축가들의 아집(?) 아니면 수의학계의 능력부족(?), 어떤 원인에서건 질병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돈가의 변수가 여기에서 큰 것 같다. 재정적 뒷바라지 없는 박멸정책 또한 신고의식 없는 질병 컨트롤은 난망이다.

어쨌든 세계화에 대비 국내에 고질병처럼 되어있는 돈 콜레라, 오제스키, PRRS, TGE, PED 또는 기타 세균성 질병들

의 효과적인 방역 대책 및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에 미 발생중인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돼지수포병, 아프리카 돈 콜레라 및 아직 미발생 또는 발생 되었을지도 모르는 미 확인 질병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언젠가는 넘어야 할 고비라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때가 오리라 확신한다.

칼 라일이 이렇게 말했다지 않는가?

“길을 가다 돌에 마주쳤을 때 야자는 그것이 장애물로 보이지만,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생각한다.” 우리도 이 난관을 디딤돌로 생각하고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